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어느덧 제 나이도 6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산다고 할 것 같지만 막상 뒤돌아보니 할 줄 아는 것도 해 놓은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어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어 수면제도 많이 먹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좀처럼 되지 않고, 아는 스님은 업이 많아서 그러니 팔자라고 생각하라는 데 그 말이 더 상처가 됩니다. 요즘은 죽는 것이 더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A**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보니 많이 힘이 드셨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의 나는 무엇

덕분인지 동기를 중 승진도 가장 빨리하게 됐고, 비교적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고 왜 살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있고, 또 나 이도 있다 보니 걱정입니다. 제가 진정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출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A** 내담자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출가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군요. 인간은 발달 단계마다 이뤄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심리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 몸 내가 돌봐야 하듯, 내 마음도 사랑해주세요

인가?' 라고 되돌려 봤을 때 허무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날들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이겨내려고 하는 내담자는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기 위해 앞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시려고 모습에 마음이 놓이며,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동안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충실히 살아오신 날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담자께서는 어디에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봐줘야 하듯, 마음도 내가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내담자가 먼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자존감의 씨앗도 싹속 자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나 명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나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자신을 좀 더 아껴주고 보듬어주길 바랍니다.

**Q** 저는 평범한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이제 자녀들도 모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래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기에 불교에 대해 잘은 몰라도 항상 마음 속에 부처님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문득 자신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종교에 귀의해 재가자로서, 수행생활을 한다던지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께서는 출가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속세의 모든 지위와 위치를 내려놓고 출가를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하심(下心)입니다.

우선 내담자께서 진정으로 출가를 하시려면 먼저 나를 만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바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출가를 해서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조계종으로 출가를 하시려면 50세 미만에 결혼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이혼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친권포기가 돼 있는 독신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단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 삶과 죽음 만나는 곳에 불법 전해요

## 행복법당 탐방 고려대 안암병원

부처님의 출가계기가 됐던 생로병사(生老病死). 이 고통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다. 하루에만 수십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환자들이 입원하며 죽음을 직면하는 환자들이 가족을 옆에 두고 세상을 떠난다.

6월 25일 고려대 안암병원의 하루도 어느 때와 다를없었다.

고려대 병원법당 지도법사인 지현 스님(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부회장)은 매주 1~3주 금요일 오후 2시 법회를 열고 마지막 주 오후 6시에는 병원 불자의료진을 대상으로 법회를 진행한다.

이 날은 법회가 없는 날이라 스님을 찾아뵙거나 법당에 들러 삼배를 올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어때요 몸은 괜찮으세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았던 미얀마인 진미씨 부부가 법당을 찾았다. 진씨는 친동생으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진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법당에 들러 3배를 하고 가요”라고 말했다.

이웃과 한 청년이 들어왔다. 지현 스님이 진행하는 BBS ‘거룩한 만남’에 소개된 새터민 김남철씨(26). 김 씨는 1998년 가족과 북한을 탈출해 오랜 도피생활 끝에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13세에 가족들과 도피하던 중 아버지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불참해 북한에 호송됐고, 그 후 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한국으로 혼자 오게 된 김씨는 17세에 재생불량성빈혈(백혈병)을 앓게 되고 수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완치를 위해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씨는 “열심히 공부해 경찰이 되고 싶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금 뒤에 호스피스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한 수녀님이 지현 스님을 찾았다. 불자인 암환자가 스님을 찾는단다. 지현 스님과 김영찬 호스피스봉사자가 즉시 달려갔다. 온몸에 암이 퍼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40대 초반인 의식불명상



고대의료원과 중앙대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과 법회 운영을 하는 지현 스님과 자원봉사자들. 지현 스님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고려대 안암병원 법당에서 법회를 연다.

## “환자는 외면하냐” 절규에 2005년 7월 고대의료원 불자회 결성 봉사하며 고려대 안산·구로·안암 3개 병동에 불교 법당 마련

태의 아내를 곁에 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

“대체 제가 잘 잘못해서 우리 아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처님이 원망스럽기만 해요.” “우리 며느리도 불쌍하고 우리 두 손주들도 불쌍하고...”

“이렇게 울어 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인은 행복한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스님도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저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이다.

1997년부터 호스피스활동을 시작한 지현 스님은 “왜 스님들은 건강할 때 절에 찾아가는 불자들은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아파서 병원에 누워 스님을 찾는 환자들은 외면하냐”는 환자들의 원망 섞인 소리를 듣고 병원 법당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 뒤 스님은 법당 개원을 발원하며 김우주 감염내과의와 신경외과 김명화 수간호사를 만나 2005년 7월 7일 고대의료원 불자회(회장 김우주·이하 고의불)를

결성, 병원에 법당 건립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활동이 없어 공간을 내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립불가 통보를 내렸다.

예전부터 의료봉사·호스피스 활동 등으로 터를 닦아놓은 이웃종교에 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불교계가 법당을 얻기는 당연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스님은 곧바로 고의불 회원들과 성지순례를 비롯해 해외근로자 봉사활동, 몽골의료봉사 등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고려대 안산·구로·안암 3개 병동에 불교 법당을 마련하게 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대의료원과 중앙대병원을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보고 의료진들을 위로하는 스님은 봉사를 하기보다는 배우고 가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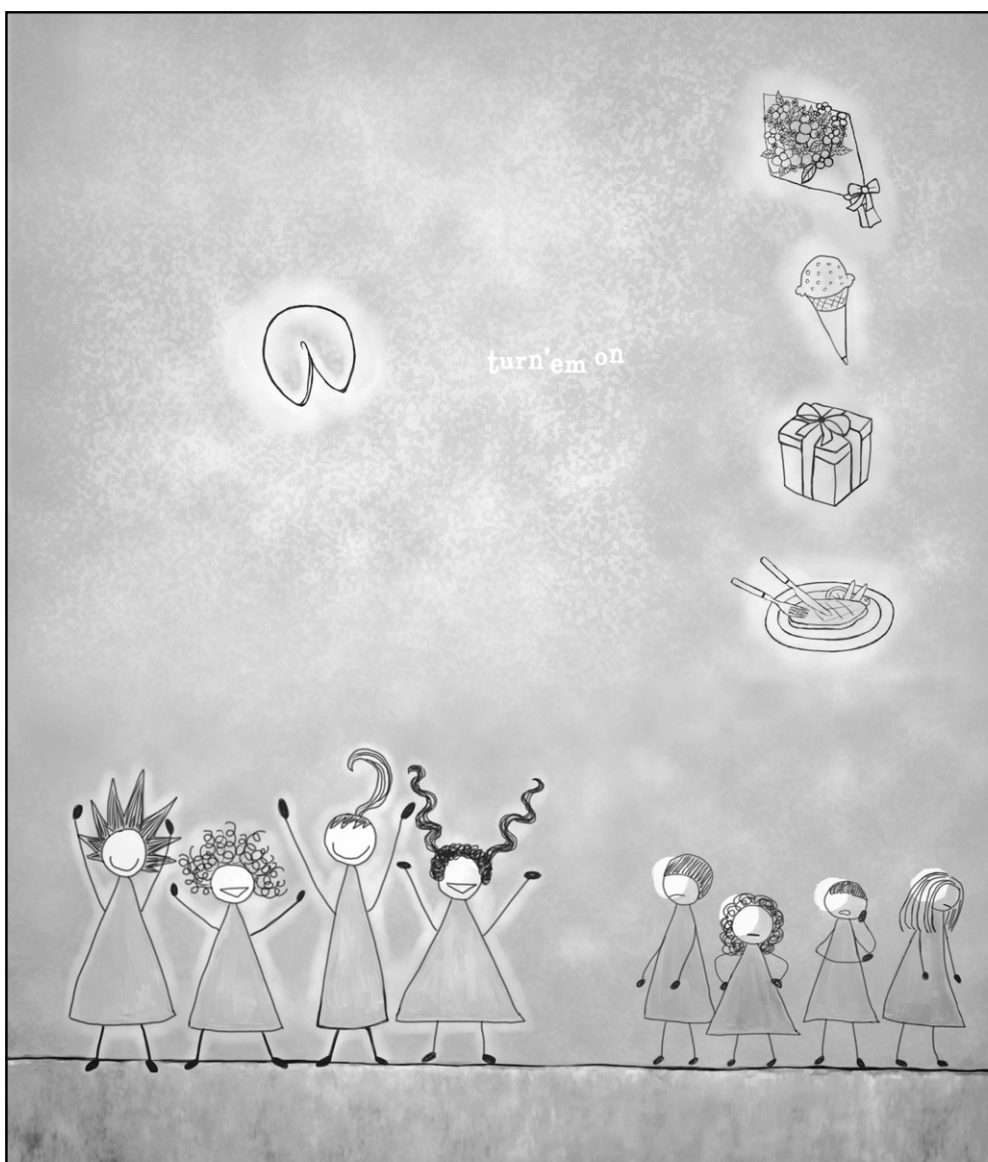
“삶과 죽음이 숨가쁘게 교차하는 병원은 그 어느 곳보다 부처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환자들을 위로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

기가 행복하다고 이야기 할 때 과연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깨우치게 됩니다.”

이냐는 기자 bohnyung@buddhapia.com

**고려대의료원 불자회(고의불)**는 2005년 창립이후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교직원 및 의료진들과 함께 해외의료사각지대는 물론 노숙자·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국내 사할 순회 의료봉사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만여 명 이상의 환자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김명화 고의불 부회장은 “마음 맞는 회원들과 불자회를 결성해 봉사로 부처님법을 회향할 수 있어 좋다”며 “그러나 의료봉사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기구들은 모두 고의불 회원들의 자비로 마련된 것이다. 스님과 불자들의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소외 이웃들을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 What is Buddha Cookie!!

##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